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18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축포와 함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화려하게 문 열다

45억 아시아인의 힘으로

45억 아시아인의 심장을 뛰게 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최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식은 지난 18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 경기장에서 2시간 가량 펼쳐졌다. 당초 하노이(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자카르타와 팔렘방이 새 호스트시티가 됐다. 아시안게임이 두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의 힘'(Energy of Asia)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개최식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알렸다. 화면 속 위도도 대통령은 이동 중 차가 막히자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스타디움에 들어왔다. 헬멧을 착용한 대통령의 오토바이 묘기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카르타의 교통 체증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평소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던 관중은 위도도 대통령이 개최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56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자카르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만춤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1500명의 무용수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연상시킬 정도

남북, 환호 속 손잡고 공동 입장
한국 목표는 종합 2위 사수
태권도·펜싱서 금 획득 기대
대회는 내달 2일까지 열전

로 하나 된 움직임을 선보였다. 불, 땅, 바람, 물 등의 테마로 나뉜 공연들은 인도네시아의 탄생과 문화를 담아냈다.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길이 120m, 높이 26m의 대형 무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옷차림의 무용수들 춤사위는 눈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수단 입장에서 남북은 코리아(KOREA)라는 명칭 아래 15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기수인 북측의 남자 축구대표팀 주경철(21)과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 임영희(38·우리은행)의 뒤로 남북 선수단이 한 데 어울려 행진했다. 귀빈석에서 지켜보던 이낙연 총리와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선수들을 환영했다. 분위기는 인도네시아 가수 비아 발렌의 공식 주제가 열창과 함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위도도 대통령은 개최 선언으로 대회의 출발을 알렸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최종 성화 점화자는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 영웅이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수지 수산티다. 선수 시절 한국의 배드민턴 스타 방수현의 라이벌이었다. 인도 뉴델리에서 점화된 성화는 인도네시아 대표 스포츠 스타들을 거쳐 수산티에게 전달됐다. 수산티는 큰 환호를 등에 업고 점화대에 불을 붙였다. 39개 종목에 80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6회 연속 종합 2위 수상을 목표로 잡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일본의 추격이 만만치 않지만 총 65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2위를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태권도에서는 3연패를 노리는 이대훈(26·대전시체육회)을 필두로 7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8개를 휩쓴 펜싱에서도 무더기 금메달이 기대된다. 여자농구, 조정, 카누에서는 아시안게임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선을 보인다. 여자농구는 개최식에 앞서 벌어진 예선전에서 인도네시아를 대파하고 역사적인 첫 승을 거뒀다. 한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9월 2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선수 지원에 최선”

AG 코리아하우스 ‘오픈’

아시안게임 동안 한국을 홍보할 코리아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오전 10시 자카르타 수디르만의 에스체베데(SCBD) 빌딩에서 제18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대회 코리아하우스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코리아하우스는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할 공간으로 활용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영상 분석실, 대한민국 문화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개관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내빈과 선수단,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한국 선수단을 위한 지원의 구심점이 될 코리아 하우스의 개관을 축하했다. 이기홍 회장은 “코리아하우스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물론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스포츠의 홍보관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다. 이제 개막식에서 남북이 같은 단복을 입고 입장할 때 전 세계인에 감동과 울림을 줬다”며 “각 국 선수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동·하계올림픽대회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해왔지만, 하계아시안게임대회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뉴시스

AG 우수 이하성, 2연패 좌절... “더 성장할 것”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했던 우수의 이하성(24)이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하성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엑스포홀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수 투로 남자 정권 부문에 출전해 9.31점으로 17명 중 12위에 머물렀다. 2014 인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착지 실수가 발목을 잡았다. 인천에서처럼 이번에도 한국 선수단의 첫 금을 기대했지만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첫 번째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져 엉덩방아를 찼다. 감점이 컸다. 나머지 연기는 준비한대로 펼쳤다. 이하성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음에 더 완벽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고창군청 유도, 실업선수권 단체전 우승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역 강팀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은 최근 잠실화성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전국실업유도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홍기문 경기지도자와 박은지, 조아라, 서수빈, 하주희, 공서영, 엄다현 선수는 대전서구청과의 단체전 첫 경기를 시작으로 충북도청과 동해시청을 잇따라 누르며 결승전에 올라 성동구청을 상대로 3:0으로 승리를 거두며 최강팀의 자력을 과시했다.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은 지난 3월에 있었던 '2018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와 6월 '제11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으며 그동안 순회훈련과 전지훈련을 반복하며 착실하게 쌓아올린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개인전에서도 조아라(-52kg)선수가 은메달을, 박은지(-78kg), 공서영(-63kg), 엄다현(+78kg)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여 올해 참가한 4개 대회에서 선수들이 획득한 개인전 메달은 총14개가 됐다. 이 또한 값진 성과로 지난해까지의 성적(개인전 메달 총7개)을 뛰어넘고 있어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많이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9년 창단된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강팀의 경기력을 과시하며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www.namwon.go.kr

사랑의 나뭇가

시원 상쾌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돌레길,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공연
삶의 여유와 힐링을 선물합니다.

밤사골계곡

관한루원

남원예촌

구룡포도

남원창극 춘향만리